

### 현대불교 제2회 신행수기 대상(유마상)

누구에게나 삶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인생의 고비라고 말할 수 있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비를 겪으며, 때론 좌절도 하고 그 한겨울로 인해 낙담하기도 한다. 낙담시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내게 닥친 시련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며, 특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가득 느끼게 해준 하나의 벽찬 선물이었다.

나는 지난해 6월 21일 난소암이란 대수술을 했다. 처음 입진단을 받았을 때 놀란 것은 사실이었으나, 거짓말같이도 담담했다. 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 자신에게 타일었다. 다행히도 내 마음속의 나는 그런 나의 실적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동안 부처님 공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 다행일 것이다.

그 후 나는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찬찬히 준비를 했다. 수술이란 길이 없이, 죽을밖에 없었다면 그 길도 기꺼이 걸어가

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세상이 좋아져서 수술의 길이 열려 있었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견뎌내기만 하면 현재의 삶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나는 원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수술이 아닌 더한 형태의 방법이라도 나는 따랐을 것이다. 살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욕망 외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신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평소의 내 생각이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그 일만을 하도록 여건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술을 잡은 날 3일 전에 큰아이의 입대 날짜

가 정해졌다.

사실 나는 수술 날짜를 잡고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식구들에게조차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수술 하루나 이틀 전쯤에 얘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미리 알려주자 걱정만 더 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준비를 했다. 그러나 군에 입대하는 큰아이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 작은 아이에게 나의 상태를 알렸고,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한 내용을 일러줬다. 남편과 아이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내 마음을 이해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죽음과 싸우게 됐고,



###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이 란 (서울 송파구 방이동)

### 난소암과 싸움은 상대지 않는 공부 무사히 수술마치고 부처님께 감사의 눈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등록증이었다.

선생님께서 나를 동국대학교로 불러내 입학수속을 마친 등록증을 건네 주었다. 나는 너무 뜻밖이라 너무 놀랐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때 남편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큰 아이는 대학생,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힘차게 디려주신 첫발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원생이 되었고, 가족의 응원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렇게 시작된 공부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선생님께서는 2월에 정년 퇴임하실 것이다. 올 여름 병마와의 투쟁 속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보지지가 않은 것 덕분이었으며, 그 결과 나는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정년퇴임과 나의 졸업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많은 시간속에 단 한번도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사랑은

나를 좀더 부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하게 했으니,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선생님은 불교대학원 등록증을 주시며, "글재주가 있어서 문예창작과에 넣어도 싶었지만, 평소 불교일에 열심이라 불교대학 사회복지과에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지극하고 세심한 배려인지, 생각할수록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여회(如會)'라는 신행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한복씩 우리 집에 모여서 사경이나 경전 강의를 들으며 신심을 다져가고 있다. 매월 작은 회보도 만들어 40여명의 회원끼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우리 모임은 모두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알차게 꾸려가고 있다.

또하나 '운주회(運舟會)'가 있는데, 회원은 15명이다. 운주회에서는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의 불사를 후원하는 모임이다. 우리는 매달 1만원씩 경성 보시를 하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 작은 힘이나마 꾸준히 해나가면 큰 불사

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 개개인이 큰 불사를 도맡아 하기도 하지만, 한 절의 불사를 위해 평생동안 꾸준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사 얘기가 나왔으니 불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고 싶다. 불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남는 돈으로 보시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보시도 봉사도 아예 안하느니만 못하다. 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해야 값진 것이고, 남는 돈이 아닌 절약해서 만들어낸 금액같은 돈으로 보시를 해야 참다운 보시라고 믿는다.

언젠가 나는 불사공 마련을 위한 전시회에 갔다가 작은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 150만원짜리를 15개월 할부로 산 적이 있었다. 월급장이의 아내인 내형편으로는 한꺼번에 15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행사를 주관하는 스님께 말씀을 드려 할부로 그림을 샀다. 생활비를 아껴 매달 10만원씩 절에 보냈었는데, 불사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 경험을 한가지 더 소개를 하겠다.



기복내용 많아... 작품 수준 떨어져

현대불교신문의 제 2회 신행수기 공모에는 총 8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6편이 예심을 거쳐 본심에 넘어갔다. 심사 기준은 신행수기 공모 취지에 맞추어 감동성을 크게 증시하였으며, 문장력과 구성력을 살렸다.

응모 작품의 수준은 작년 첫 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그 반면 응모자의 연령과 직업은 크게 다양해졌다.

심사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란씨의 수기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를 대상으로 뽑았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란씨의 수기는 암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펼쳐나온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있다. 그래서 특히 신앙적 감동도

그 결과 지금은 상당히 호전되어 원고지를 마주하고 있으니 내게는 지난 일들이 새삼스럽게 여겨진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상(相)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내게는 커다란 공부였다. 공부를 좀해서가 아니라, 어찌보면 병에 걸려 수술한 일쯤이야 대수는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투병의 과정을 글로 써서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속스럽고 우세스럽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글이 붓을 들게된 심경을 밝힌다면 부처님과 내 도반들, 그리고 교교시절의 은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다.

먼저 내 은사님 얘기를 하고 싶다. 여고 1학년때 담임이었던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린 것을 계기로 선생님과 나는 서로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선생님의 회갑을 기해 가을 속에 담아 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올렸다. 그간 선생님은 지방에 있는 중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나는 장성한 무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이다.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신인데, 나를 만나면서 함께 절에 많이 다니셨다. 공교롭게도 선생님을 만날 때면 꼭 절에 같이 가서, 나를 난처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동행을 해주셨고, 나도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썼다.

내가 이번에 글이 선생님 얘기를 꺼낸 것은 선생님께서 나에게 잊지 못할 선물들

<p>초중과 일불제자의 길을 향한</p> <p><b>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b></p>		<p>총재 이의운</p> <p>이사장 정창교</p> <p>상임이사 이정숙</p> <p>교회원장 백운월</p> <p>사무총장 배정길</p> <p>이사 이병돈, 박종, 배창문, 배정길, 구자일, 이용규, 이정명, 유운덕,</p>		<p>이상하, 양승희, 권세철, 백운월</p> <p>정법원 원장 덕 일</p> <p>교육원장 박 종</p> <p>총무부장 배 경</p> <p>기획부장 덕 일</p> <p>포교부장 현 진</p> <p>사업국장 병 박</p> <p>총무국장 수 덕</p> <p>기획국장 윤 선</p> <p>사업부장 지 양</p> <p>총보부장 배 동</p>		<p>규정부장 신 산</p> <p>출판부장 명 현</p> <p>재정국장 한세천</p> <p>직할사업소 무로직업안내소 직업지도사 장정선</p> <p>신원청소년독서실 관장 배정길</p> <p>양천구 무료경로식당 대표 배정길</p> <p>주소: 동대문구 청량동 56-16</p>		<p>중앙회관 964-8044/8085</p> <p>정법원 957-0779/969-1315</p> <p>직업안내 964-7796/7</p> <p>청소년상담실 699-2010</p> <p>전송 965-3143</p> <p>서울사무소 644-0013/6</p> <p>청소년독서실 695-4611</p> <p>경로식당 698-9605</p>		<p><b>인과선원</b></p> <p>주 지 정 덕</p> <p>신도 일 동</p> <p>▶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p> <p>전화 : 993-3706</p> <p>907-3706</p>	
---	--	---	--	---	--	--	--	---	--	---	--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 천수경연구

천수경은 한국불교에 소개된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인식되고 독송되는 경전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천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서이다.

〈현행 「천수경」은 한국에서 형성된 독특한 신앙의례적 경전이다.〉

〈현행 「천수경」은 한국불교신앙의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장경 어디를 보아도 현재 한국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천수경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저자는 광범한 연구를 통해, 〈현행 천수경〉이 이전의 많은 의식집들의 집대성이며 그것들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과 한국불교 특유의 통불교적 성격, 즉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선 등의 요소를 종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각 지음/신국판 양장/214쪽 값 10,000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선의 생명력을 느낀다!

# 禪 이야기

선의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오늘의 선을 생각해 하는 책!

초심자에게는  
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달마에서 성철까지!  
생동감 넘치는 선의 일화, 선의 역사와 본질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선 입문서.

제1부 아름답고 힘찬 선의 지혜  
제2부 선의 기원과 본질  
제3부 선의 탐구, 선어록을 읽는다

일지 지음/신국판/300쪽/값 8,000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육조혜능스님의 금강경구결 최초 수록

## 금강경 육조대사구결

금강경구결은 금강경의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한 금강경의 핵심이다.

1084년 중국 나척스님이 당시에 유통되던 판본들의 오자·탈자를 바로잡은 것을 최초로 번역한 이 책은, 『배불론』을 쓰려다 『호법론』을 쓴 당나라때의 재상 장상영(張上英) 거사가 각 품마다 간략한 해의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유조 조 · 이동형 譯 · 송근일 監修  
신국판 양장/233쪽/값 6,500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